

바이트 기획

AI 시대, 기획 산출물의 형태가 바뀌어야 한다

2025.12.06

강사 소개

윤태섭

부트페이 CTO



개발 경력 20년



1주일에 1 MVP 제작 중



YouTube @AI잡돌이

도입

충격적인 이야기

40대 판교 개발자, 역대 연봉 받던 분이

"아이디어만 주시면 제가 개발해드릴게요.
월 5만원만 구독료 내주세요."

예전에는 기획자가 개발자 눈치 보던 시대
지금은 개발자가 도메인 전문가를 찾는 시대

회사 자원의 변화

예전

지금

구현 능력 = 희소 자원

시니어 몇 명이면 충분

"뭘 만들지 아는 것"

"고객을 이해하는 것"

"문제를 정의하는 것"

= 도메인 지식 = 여러분이 가진 것

하지만, 조건이 있다

기획하는 방식을
바꿔야 합니다

개발자들의 속마음

Part 1



하루

프로토타입



이틀

MVP



일주일

배포

"기획도 하루이틀이면
되지 않아?"

(진짜 이렇게 생각해요)

바이트 코딩, 뭐가 다른가

옛날 개발

설계 → 코딩 → 테스트 → 수정

완벽하게 설계하고, 완벽하게 만들려고 함

바이브 코딩

"이거 만들어줘" → 결과 → "고쳐줘" → 반복

일단 만들고, 고치고, 또 고치고

완벽하게 설계한 다음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.

만들면서 설계가 구체화되는 거예요.

진짜 바이트 기획 =

산출물의 형태가 바뀌는 것

❌ 예전 산출물

→ PPT 50장

→ 예쁜 표, 다이어그램

👤 사람이 읽기 좋은 형태

✅ 바이트 시대 산출물

→ 마크다운 문서

→ 구조화된 텍스트

🤖 AI가 이해하기 좋은 형태

AI가 기획서를 읽는다

예전: 기획서를 개발자가 읽음
→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, 예쁘게

지금: 기획서를 AI가 읽음
→ "이거 만들어줘" 하면 바로 구현

마크다운으로, 구조화된 텍스트로,
AI가 바로 읽을 수 있게

현실: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

전반부	후반부
마크다운으로 기획하기	전통적 산출물로 변환하기
AI가 읽는 형태로 만들기	사람이 읽는 형태로 바꾸기
핵심 - 새로운 방식	현실 - 회사가 요구하는 것

Claude Code: 터미널에서 일하는 AI

웹 AI (ChatGPT, Claude)

브라우저에서 채팅

대화 → 복사 → 붙여넣기

Claude Code

터미널에서 바로 작업

파일을 직접 읽고, 직접 만들어줌

복사-붙여넣기가 없어요.

맥락이 끊기지 않아요.

기획 접근법 플로우

먼저 전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.



각 단계마다 **마크다운 문서가 하나씩** 생겨요.
이 과정을 AI한테 어떻게 시키냐면요...

지침 파일: AI한테 업무 매뉴얼 주기

CLAUDE.md

프로젝트 전체 지침

- "우리 서비스는 이런 거야"
- "컨셉은 rules/컨셉.md 참조해"

rules/기능.md

세부 지침들

- 기능정의서 작성 규칙
- rules/세일즈.md
- rules/MVP.md

→ "고객여정은 rules/고객여정.md
참조해"

신입한테 업무 매뉴얼 주는 거랑 똑같아요.

한 번 잘 만들어두면, 매번 설명 안 해도 됩니다.

루프백: 점점 똑똑해지는 지침

아이디어

→

컨셉

→

기능

→

고객여정

→

세일즈

→

MVP

→

개발 착수

각 단계의 지침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아요.



1. 일단 지침 써서 시켜본다
2. 결과 보고 아쉬운 점 찾는다
3. rules/컨셉.md, rules/기능.md 를 개선한다
4. 새 채팅 열어서 다시 시켜본다
5. 반복

대화하면서 발견한 좋은 패턴을 **지침으로 저장하고, 새 채팅에서 다시 테스트하고, 계속 개선**

그런데 매번 같은 걸 물어보는 게 귀찮아지면?

Custom Command = 나만의 단축키

매번 물어보는 것:

→ "이 아이디어로 누가 어떤 문제를 겪어?"

→ "핵심 가치랑 차별점이 뭐야?"

→ "서비스 컨셉 마크다운으로 정리해줘"

→ `/appkit.new` 하나로 끝!

데모: 명령어 실행

/appkit.new 야놀자 같은 테니스 코트 예약 앱

```
# 서비스 개요.md
```

항목	내용
-----	-----
서비스명	코트타임
핵심 컨셉	직장인의 주말 운동을 쉽게 만드는 예약 서비스
타겟 고객	30-40대 직장인, 테니스 입문자~중급자
핵심 문제	전화 예약 번거로움, 가격 불투명
해결책	3초 예약, 실시간 가격 비교

하루 만에 나오는 것들

- ✓ 서비스 컨셉 문서 (마크다운)
- ✓ 기능정의서 (마크다운)
- ✓ 페르소나/고객여정 (마크다운)
- ✓ 세일즈 메시지 (마크다운)
- ✓ MVP 범위 정의 (마크다운)

전부 AI가 바로 읽고 구현할 수 있는 형태

솔직한 기대치

AI가 뽑아준 건 초안입니다.
한 50-60%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

검토하고, 맥락 입히고, 다듬어야 해요.

이 초안을 기반으로 AI랑 대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구체화 대화 내용이 바로 마크다운 파일에 반영 → 바로 구현

마크다운 초안 문서를 개발자에게 넘기는 것
= **바이브 기획 산출물**

그런데 회사에서는 PPT 달라고 하죠?

마크다운 → 전통 산출물

Part 3

내용은 이미 다 있어요. 형태만 바꾸면 돼요.

→ 노션

"노션에 배포해줘" 하면 됨

→ PPT

"슬라이드 구성해줘" 하면 정리
됨

→ 기능정의서 양식

기능정의서 만들어줘" 하면 정리
됨

양식을 *HTML*로 먼저 만들어주세요.

html → pdf, ppt로 해서 제출

핵심: 순서가 중요하다

❌ 잘못된 순서

처음부터 PPT로 만든다

- 수정할 때마다 PPT 수정
- 개발자에게 줄 때 또 정리
- AI한테 줄 때 또 변환

✅ 올바른 순서

마크다운으로 먼저 (AI가 읽는 형태)

- 수정도 마크다운에서
- 개발자에게 줄 때 그대로
- 보고용으로만 PPT 변환

소스는 마크다운, 보고용은 변환해서

자,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.

루프백: 이게 핵심이에요

이게 일직선이 아니에요.

[1] 서비스 컨셉

↓ 결과 확인 → 아쉬움 발견

루프백 사이클

프롬프트 수정 → 다시 실행 → 결과 비교 →

지침에 반영 →  반복

- 결과가 별로? → 프롬프트 고쳐서 다시
- 괜찮아졌어? → 그 프롬프트를 지침에 저장
- 다음에 또 쓸 때? → 저장된 지침으로 바로 실행

예시: 루프백 돌린 과정

1 처음 시도

"야놀자처럼 테니스 코트 예약하는 앱 기획해줘"

결과: 별로.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.

2 루프백 1회차

"서비스 컨셉, 타겟 고객, 핵심 문제, 해결책 정리해줘. 마크다운 표로."

결과: 좀 나아짐.

3 루프백 2회차

"이런 형태로: | 항목 | 내용 | ..."

결과: 원하는 형태!

4

저장 → 명령어로

/appkit.new 만 치면 같은 결과

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

이번 주: 기록하기

AI한테 뭘 물어봤지?

→ "00 정리해줘"

결과가 어땠지?

다음 주: 패턴 찾기

→ "나 맨날 '표로 정리해줘' 붙이네"

→ "항상 '예시 들어서' 요청하네"

→ 70% 만족 / 표 형태가 아쉬움

다시 어떻게 물어봤지?

→ "마크다운 표로 다시"

그 다음: 명령어 만들기

AppKit 참고해서 나만의 명령어 만들기

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:

"오늘 AI한테 뭘 물어봤지?" 기록하기

결론

핵심 메시지 3가지

1

시대가 바뀌었다

구현 능력 → 시니어 몇 명이
면 충분
도메인 지식 → 새로운 희소
자원

2

산출물 형태를 바꾸세요

PPT → 마크다운
사람이 읽는 형태 → AI가 읽
는 형태

3

나만의 방식을 만드세요

프롬프트 기록 → 패턴 찾기
→ 템플릿

개발자들은 솔직히 생각해요.

"기획도 하루이틀이면 되지 않아?"

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세요.

산출물의 형태를 바꾸고, 나만의 방식을 만들고,
진짜 하루이틀 만에 해내는 겁니다.

 AppKit 오픈소스

github.com/rupy1014/appkit

도메인 전문가의 시대